Ⅵ. 부록

1. 논술 전형 필답고사 문항카드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고민의 내용, 새로운 인식, 자기 반성, 향수, 존재의 결핍, 성장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민하는 '나'가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싫증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사금파리: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나)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초겨울 찬바람이 손을 시리게 만드는 저녁 무렵, 나는 생애 최초로 라면을 먹었다. 그 맛은 기존의 질서에서 살짝 일탈한 위반의 맛이었다. 동시에 인스턴트했고 중독의 예감을 안겨 주는 맛이었다.

그로부터 삼 년 뒤에 나는 서울의 변두리 동네로 전학을 와서 어느 독서실에 출입하게 되었다. 독서실에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환경에 걸맞게 더욱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었다. 빈 분유 깡통에 물을 넣고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은 다음 뚜껑을 덮는다. 비닐 뚜껑에는 미리 뚫어 놓은 구멍이 두 개 있는데 그 구멍에 전극이 연결된 젓가락을 꽂는다. 그러면 곧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깡통 안의 물이 끓어오른다. 물이 끓는 것과 동시에 젓가락을 빼고 자기 자리로 깡통을 들고 와서 몇 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된다. 그 라면은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짰고 더욱 인스턴트했고 냄새가 강했다.

그로부터 대략 이 년 뒤, 서울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꽉 눌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다.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껍질을 벗겨 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수프를 풀어 끓여 놓은 냄비 속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세 쪽 아니면 네 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주었다.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도 든든했다.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다.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동안 나는 초겨울 빈 들에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가 짚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 보기도 했다. 또 어렵사리 분유 깡통을 구해 젓가락을 넣다가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닿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수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대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지요. 잃어버린 내 조각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 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에 핀 꽃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 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다.

"내 잃어버린 힉, 조각을 힉, 찾았어요! 힉!"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려 가며 노래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라) [앞부분의 줄거리] 나(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 주세요."

"대관령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아뇨,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이봐라, 정수야."

"예."

"니 올해 나이가 몇이나?"

"열일곱 살요."

"그러면 그건 스무 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구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구요. 이번엔 아주 멀리요."
(중략)
"어쩌면 이게 니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 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 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니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 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예, 명님(명념)* 할게요."
"니두 이다음 자식 키워 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니가 니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나는 다음 해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에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스무 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니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뒷부분의 줄거리] 나는 그동안 어른놀이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를 깎고, 두 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

*고랭지: 낮은 위도에 있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명념(銘念): 명심.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둠.

3. 출제 의도

-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 주어진 네 제시문을 '고민' 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제시문이 '나'의 고민의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주인공이 '고민하는 내용' 및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인식' 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 rowspan="4">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교과명: 국어</td></tr>
<tr><td colspan="2">과목명: 국어</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2-05]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td><td>제시문 (가)</td></tr>
<tr><td>성취기준 2</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td><td>제시문 (나)</td></tr>
<tr><td colspan="2">과목명: 독서</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td><td>제시문 (다)</td></tr>
</table>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성취기준 2	[12독서04-02]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제시문 (라)
성취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20	91-92	제시문(가)	○
국어	정민 외	해냄	2019	102-104	제시문(나)	○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95	제시문(다)	○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21-29	제시문(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정여울의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섣불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고민하고, 자신의 비관적 태도에 대해 자기 반성적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을 서술한 글이다. 글쓴이는 포기하는 습관이 내면화된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패

하더라도 도전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깨우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9) 교과서에 실린 성석제의 수필 「소년 시절의 맛」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화자는 과거 어린 시절에 먹던 라면의 맛을 다시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라면을 끓여보며 시도하지만, 끝내 그 맛을 찾지 못하며 고민한다. 그 결과 내가 되찾고자 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임을 인식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 2021) 교과서에 실린 셸 실버스타인, 「잃어버린 조각」(장영희, 「특별한 보통의 해」에서 재인용)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나는 온전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껴 결핍을 채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존재와 교감하기 힘든 자신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행복의 조건임을 인식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이순원의 「19세」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학교 대신 농사 짓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한다. 결국 나는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을 하며 학교로 돌아간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과 그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td><td>40</td></tr>
</table>

(가) 고민 내용: 나는 실패가 두려워 핑계를 대며 섣불리 꿈을 포기해 온 삶에 대해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포기하는 습관이 내면화됐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음을 자각함 (4점)
(나) 고민 내용: 나는 '과거의 라면 맛을 잃어버리고, 이를 되찾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끓여 봤지만 그때 그 맛을 느끼지 못해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내가 되찾고자 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임을 인식함 (4점)
(다) 고민 내용: 나는 '온전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껴 결핍을 채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존재와 교감하기 힘든 자신에 대해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행복의 조건임을 인식함 (4점)
(라) 고민 내용: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학교로 돌아감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 과 그 결과 '나'가 도달한 '새로운 인식' 을 찾아 <u>하나의 완성된 글</u>(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1)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2)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고민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나가 나타난다. **결론**: 따라서 나는 포기에 대한 자책, 잃어버린 맛, 완전성과 행복의 관계, 선택에 대한 후회로 고민하면서, 자기반성, 추억의 소중함, 결핍의 인정, 나이에 걸맞은 성장이 의미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각 제시문에서 각각 고민 내용과 새로운 인식을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	17~24점

		우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논리적 구성 (3점) 및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에는 고민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나가 나타난다. (가)의 나는 실패가 두려워 핑계를 대며 섣불리 꿈을 포기해 온 삶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통해 포기하는 습관이 내면화됐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음을 자각한다. (나)의 나는 과거의 라면 맛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끓여봤지만 그때 그 맛을 느끼지 못해 고민한다. 그 결과 내가 되찾고자 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임을 인식한다. (다)의 나는 온전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껴 결핍을 채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존재와 교감하기 힘든 자신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행복의 조건임을 인식한다. (라)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한다. 결국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에 이르러 학교로 돌아간다. 따라서 나는 포기에 대한 자책, 잃어버린 맛, 완전성과 행복의 관계, 선택에 대한 후회로 고민하면서, 자기반성, 추억의 소중함, 결핍의 인정, 나이에 걸맞은 성장이 의미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문항카드 2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대화와 설득, 믿음과 사랑, 두려움에 기반한 통치, 존재의 의미, 저항, 역성혁명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라)의 부자 간 대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논지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앞부분의 줄거리] 나(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 주세요."
"대관령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아뇨,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이봐라, 정수야."
"예."
"니 올해 나이가 몇이나?"
"열일곱 살요."
"그러면 그건 스무 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구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구요. 이번엔 아주 멀리요."

(중략)

"어쩌면 이게 니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 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 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니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 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예, 명님(명념)* 할게요."

"니두 이다음 자식 키워 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니가 니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나는 다음 해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에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스무 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니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뒷부분의 줄거리] 나는 그동안 어른놀이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를 깎고, 두 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

*고랭지: 낮은 위도에 있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명념(銘念): 명심.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둠.

(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따라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 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니발: 카르타고의 장군.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고 이탈리아에 침입하여 로마군을 격파하였다.
*이역(異域): 다른 나라의 땅. 또는 고향이 아닌 딴 곳.

(바)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

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옻*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집터서리: 집 바깥 둘레의 근방.
*옻: 옻나무에서 나는 진액.
*옴: 옴진드기가 기생하여 일으키는 전염 피부병.

(사) 맹자는 사람에게는 단지 도덕적인 마음의 단서가 있을 뿐, 이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선한 마음의 싹이 말라 죽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까닭에 맹자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기르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수련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성선설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도덕적 마음이 있다고 전제하고, 통치자가 이러한 마음을 정치로 확장할 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한다. 따라서 맹자는 형벌로 강제하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 정치라 하였다.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며, 통치자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통치자를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역성혁명: 군주가 군주답지 못할 때 하늘의 뜻에 따라 혁명으로 왕조를 바꿀 수 있다는 뜻.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타난 통치 윤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에 비추어 해석, 비판하는 능력, 2) 통치 윤리의 윤리적인 측면을 도출해 내는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및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군주의 통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여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통치 윤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국어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td><td>제시문 (라)</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td><td>제시문 (바)</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td><td>제시문 (마)</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td><td></td></tr>
</table>
2. 교과명: 도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12윤사02-01] 동양과 한국의 연원적 윤리 사상들을 탐구하고, 이를 인간의 행복 및 사회적 질서와 관련시켜 토론할 수 있다.</td><td>제시문 (사)</td></tr>
<tr><td>성취기준 2</td><td>[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td><td></td></tr>
</table></td></tr>
</table>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제시문(사)
성취기준 2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21-29	제시문(라)	○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47-177	제시문(마)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1	20-21	제시문(바)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21	45-47	제시문(사)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생활과 윤리)	조석영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90	제시문(사)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이순원의 「19세」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학교 대신 농사 짓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한다. 결국 나는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을 하며 학교로 돌아간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 2019)에 실린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군주의 통치 방식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사랑보다 두려움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다. 한니발의 사례를 들어 그러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21) 교과서에 실린 이문구의 수필 「성난 풀잎」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잡풀을 제거하다가 풀독에 걸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름 없는 풀도 뽑히고 베어질 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억압과 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21) 교과서에 실린 「도덕적 마음과 제도적 규범」과 고등학교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생활과 윤리)』(한국교육방송공사, 2022)에 실린 「맹자의 왕도 정치」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앞의 제시문은 존심양성의 수련을 강조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기초한 왕도정치 사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벌을 강조하는 패도정치는 역성혁명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사람은 무력에 의한 통치에는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 한다. 위반 글자 수 / 감점 점수 ±1~25자 / 1점 감점 ±26자 이상 /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의 부자 간에 대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논지를 비판했는지를 평가한다. : 5-20점 부여** (1) 제시문 (라)에서 아버지의 태도가 아들의 반항을 참고 경청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준다는 점을 기술한다. (2) (라)의 아버지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아들의 동의를 이끈 것과 대비하면, (마)의 군주는 폭력적 강압적 태도를 취하기에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점을 비판한다. -제시문 (라)의 아버지의 태도가 반항을 참고 경청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조언을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경우 : 5~10점(최대 10점 만점 부여) -제시문 (라)의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기술하고 (마)의 군주의 통치가 인간에 대한 불신, 두려움을 동원하기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 11~20점 부여(최대 20점 만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2)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였는 지를 평가한다.(20점): 5~20점 부여** (1) 제시문 (바)에서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계속되는 폭압에 고통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한다. (2) 제시문 (사)의 논지는 군주가 선한 의지를 쌓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치할 때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결국 군주의 지위까지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제시문 (마)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로 군주의 통치로 인해 피통치자가 고통을 느껴 저항을 불러오고, 결국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제시문 (바)의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기에 폭압에 고통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을 경우: 최대 7점 부여	40

-제시문 (사)의 군주가 강압적으로 통치하면,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군주의 지위까지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을 경우: 최대 7점 부여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군주 통치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통치자의 고통과 저항. 체제전복을 구분하여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를 근거로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비판했는지 평가(20): 5-20점	제시문 (라)의 아버지의 태도를 명료하게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5~10점
		라)의 아버지의 태도를 기술하고 (마)의 군주의 강압적 통치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어서 동의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한 경우	11~20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군주의 통치 방식이 초래할 문제를 서술했는가를 평가(20): 5~20 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5~7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8~14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의 군주의 통치가 피통치자의 고통, 저항과 체제 전복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을 제시했을 경우	15~20점

7. 예시 답안

(라)의 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을 참고 경청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주는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마)의 군주의 통치 방식은 인간을 불신하기에 사랑보다 두려움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다. 따라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아들의 동의를 이끈 아버지의 태도와 대비하면,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 수 없는 군주의 통치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바)의 요지는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계속되는 폭압에 고통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에 따르면 군주가 선한 의지를 쌓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치할 때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군주의 지위까지 박탈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군주가 부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통치 방식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나아가 군주가 더 잔인하게 통치한다면 결국 체제가 전복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문항카드 3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유지, 공동체주의, 공익과 사익의 조화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설명하고, 제시문 (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차)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제시문]

(아) 근대 시민 혁명을 전후로 등장한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보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성 결핍 현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성 결핍 현상은 개인을 사회와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자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개인을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자) 중세 시대 어느 작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은 양을 기르는 일이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워서 양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들은 마을 공유지인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마을 주민 누구도 이 초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초원은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지로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신의 양이 풀을 먹게 할 수 있었다. 초원의 풀이 풍부할 때 이 공동 소유 제도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공유지의 풀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자 양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렸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양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에 풀이 자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초원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마을 공유지에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없게 되었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 산업은 쇠퇴하였다. 마을은 결국 생활 기반을 상실하였다.

(차) 권리는 의무를 전제로 하고, 의무는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을 강요한다면 개인이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것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하지는 않으며, 공동선과 공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 등 사익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 출제 의도

-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 상황과 그 기반이 된 자유주의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 2)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상호 보완적 시각을 이해하고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 주어진 제시문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td rowspan="4">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교과명: 사회</td></tr>
<tr><td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을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td><td>제시문 (아)</td></tr>
<tr><td>성취기준 2</td><td>[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td><td>제시문 (자)</td></tr>
<tr><td>성취기준</td><td>[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td><td>제시문 (차)</td></tr>
</table>

3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3-02]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아)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9	181	제시문(아)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20	140	제시문(자)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88	제시문(차)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작문)	이도영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191	제시문(아)	○

5. 문항 해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2019)에 실린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고등학교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작문)』(한국교육방송공사, 2022)에 실린 지문의 일부이다. 첫 번째 제시문은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자유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는 전체 사회의 부를 증가시켜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서 개인의 행태가 공공성 결핍 현상의 원인으로 작

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20)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중략표시는 생략하였다. 해당 부분의 원전은 맨큐가 저술한 『맨큐의 경제학』이다.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공동 소유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개인들의 무분별한 자기 이익 극대화 행태는 종국적으로 공유지의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천재교육, 2020)에 실린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중략표시는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조화되어야 공익과 사익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2점)

(1)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마을 주민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초래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6점)

(2)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기초한 합리적 이익 추구 행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양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이는 결국 마을의 공동재산인 초원의 황폐화로 이르게 된다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술한 경우 (6점)

2) 제시문 (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8점)

(1) 마을 주민들은 각자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양을 키우는 동시에 마을의 공

</td><td>20</td></tr>
</table>

동소유인 초원의 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민 간 공동체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된 경우(6점)

(2)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적 권리와 공동체 의무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12점)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마을 주민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초래한다는 (아)의 논지 제시	3-6점
		합리적 이익 추구 행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양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이는 결국 초원의 황폐화로 이르게 됨	9-12점
	②(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8점)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사익과 공동체주의의 공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함을 기술	3-6점
		사적 권리와 공동체 의무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내용 요약 정리	7-8점

7. 예시 답안

(아)에 따르면 마을의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은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초래한 마을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는 사회 전체의 부로 이어진다. 그러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양 숫자를 늘렸고, 결국 양이 너무 많아져 한정된 자원인 초원이 황폐해졌다. 따라서 마을의 쇠퇴를 막기 위한 주민의 자세를 (차)에서 찾자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양을 키우되 공유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권리와 의무, 개인의 사익과 공동체의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문항카드 4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명칭, 호칭, 지칭, 맥락의 변화, 감정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작품 속 인물 A가 인물 B를 일컫는 표현의 변화가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인물 A가 인물 B를 바꿔 부르는 '이유'를 찾고, 이렇게 바뀐 표현 속에 담긴 인물 A의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가) 엄 행수는 마을 안의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다.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엄 행수로 말하면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엄 행수가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등을 꾸부리고 들어가서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엄 행수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

단 말일세.

엄 행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옷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 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 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아마 엄 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걸태질하다: 염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마구 긁어모으다.

*예덕(穢德): 더러운 것으로 덕을 쌓음.

(나) [앞부분 줄거리] 방삼복은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친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미군 장교(S 소위)에게 접근하여 통역을 해 준다. 그 일을 계기로 방삼복은 S 소위의 통역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호사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을 장만하였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 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코 삐뚤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옴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 삐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미씨다 방…….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꿇어앉히구 항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순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노나 주문세, 절반. 응,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머, 지끔 당장이래두, 내 입 한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도지(賭地):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의표(儀表):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엠피(MP: Military Police): 헌병.

(다) [등장인물]

현철: 국군 장교 **상상:** 국군 병사
치성: 인민군 군관 **택기:** 인민군 병사
촌장: 부락의 우두머리

[앞부분 줄거리]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강원도 함백산의 숨겨진 마을 동막골에 낙오한 인민군, 전쟁에 회의를 느껴 탈영한 국군이 우연히 모여든다. 서로 뜻하지 않게 마주친 국군과 인민군은 부락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

치성 입 다물고 손 올리라우!

현철 할 거 남았으면 해 봐라. 발 떼고 싶으면 떼고, 총질하고 싶으면 손가락이라도 까딱해 봐라. 다 죽자 하고 총질해 대 보면 결국엔 남는 놈 있을 테니까 그놈이 깃발 꽂고 이겼다 치자고.

택기 말뽄새 좋구만, 그 입으로 우리 입 막아 보라우. 수류탄 세 발 앞마당에 떨어질 테니 그때도 그렇게 설레발을 깔 수 있나 보자우.

현철 어르신, 이 부락은 죄다 빨갱이 신봉자들만 모여 있소? 정신 차리세요.

촌장 글쎄, 난 잘 모르겠구만. 그래, 그런 말 많이 들었지. 난리 통에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었다 하더구만. 찢기고 말려 죽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 빨갱이가 뭐고 누가 우리 편인지…… 난리가 났다 해도…… 이 근방에선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지. 밑에서 쌈질하는 거 영문도 모른 채 평안히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편 가르고 적 만들어 죽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내가 촌장이오. 내 생각이 부락의 생각이오. 이건 손들어 결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치성 우린 북쪽으로 갈 거외다. 우리가 운이 좋아 살아서 귀대를 하면 어느 격전지에서 마주칠 수도 있갔구만. 그때 쏘라우, 소위 양반.

택기 빨리 쏘아야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먼저 쏜다.

현철 몇 살이냐? 도대체?

택기 열일곱이다. 왜?

현철 내가 열 살이 많다. 말 좀 가려라.

치성 그럼, 나랑 띠동갑이구만.

현철 …….

상상 어…… 그럼 11년 돼지띠세요? 우리 아부지하고 동갑이네.

치성 자식 일찍 봤구만.

현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치성 서택기! 이 소위 양반한테 형이라 부르라.

택기 네? 아니…….

치성 그렇게 부르라. 그러면…… 이 소위 양반 나한테 큰 형님이라 부를 것 같지 않네?

현철 꿈 깨시지…….

촌장 자…… 자…… 보아하니 다들 내 손아래 같은데…… 그만들 칭얼대고…….

(라)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의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 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하릴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우중충한 날씨에 그의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울적해졌다. '잠을 약간 더 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죄다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으나 이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그런 자세로 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아무리 뒤척여 보아도 번번이 흔들거리며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 낮은 음성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음성으로 여동생이 애원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오빠?"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그레고르를 본 가족들은 크게 놀라고, 그레고르는 방에서만

생활한다. 그레고르를 혐오하게 된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를 던져 큰 상처를 입힌다. 가족을 부양하던 그레고르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업을 구하고 하숙을 하며 살아갈 길을 모색한다. 하숙을 운영하던 중, 하숙인들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우린 이제 저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은 이제 아버지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그럴 게 뻔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마저 이처럼 끝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어찌나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여동생의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자신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렸다.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우리 어떡하면 좋겠니?"

"내쫓아야 해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것이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것이 오빠라면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곁에 오빠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면서, 이 집을 온통 독차지하고 들어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뒷부분 줄거리] 날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던 그레고르는 음식을 거부하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명칭/호칭/지칭'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나타나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 변화의 이유, 내재된 감정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1-06]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57쪽)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59쪽)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59쪽)	제시문 (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124쪽)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125쪽)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124쪽)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128쪽)	제시문 (나)
성취기준 3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125쪽)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126쪽)	제시문 (라)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8	92-96	제시문(가)	○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18	22-28	제시문(나)	○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17	66-68	제시문(다)	○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144-147	제시문(라)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8)에 실린 박지원의 글 「예덕선생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이 제시문에서 작가는 엄 행수라는 하층 계층을 주요인물로 등장시켜 양반 계층의 허위 허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엄 행수는 천한 일을 도맡아 성실하게 일하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작품 속 또 다른 등장인물인 선귤자는 이런 엄 행수를 예덕 선생이라 높여 지칭하면서 칭송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8)에 실린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제시문에서 작가는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상 및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려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백 주사는 일말의 역사의식도 없이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이며, 또 다른 인물인 방삼복은 어떠한 사명감도 없이 외세에 기대어 출세한 기회주의자이다. 제시문에서 백 주사는 방삼복의 권력에 기대어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그를 '미스터 방'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지학사, 2017)에 실린 장진의 「웰컴 투 동막골」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제시문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 우연히 한 산골 마을에 모여든 국군과 인민군이 총과 수류탄을 들고 대치하게 된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 긴장 상황에서도 국군과 인민군은 서로의 나이를 묻고 답하면서 호칭을 바꿔 부르는 등,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는 문화적 동질감을 확인하게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또한, 출제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문의 중간에 카프카의 작품집 『성』(강두식 옮김, 여명출판사, 1994)에서 일부분(242-243 쪽)을 부분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변신」은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그린 작품으로, 제시문은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면서 그의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를 대화 장면으로 보여준다. 그레고르의 여동생은 오빠가 가족에게 경제적인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면서 '저것'으로 지칭한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제1</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인물 A 가 인물 B 를 바꿔 부르는 '이유'와, 바뀐 표현 속에 담긴 인물 A 의 '감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단, 인물 A 와 인물 B 를 지정하고, 바꿔 부른 호칭/명칭/지칭을 명시해야 함. (32점)

(가) 이유: 선귤자가 천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낮잡아 부르는 엄 행수의 근면하고 소탈한 삶을 높이 여겨 예덕 선생이라 부름. (4점)
감정: 벗 이상의 선생으로 우러르는 깊은 존경심. (4점)

(나) 이유: 백 주사가 보잘것없던 삼복이가 미군일을 돕게 되면서 신분 상승한 것을 보며 미스터 방이라고 부름. (4점)
감정: 자신과 삼복의 뒤바뀐 처지에 대한 굴욕감과 그를 통해 본인의 바람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4점)

(다) 이유: 치성이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자 현철을 소위라는 계급 대신 택기에게 형이라고 부르게 함. (4점)
감정: 문화적 동질감과 친밀감. (4점)

(라) 이유: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오빠라고 부르다가 그가 벌레로 변하면서 가족의 짐이 되자 저것이라 지칭함. (4점)
감정: 무용한 존재가 된 오빠에 대한 원망과 경멸감.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이유'와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td><td>40</td></tr>
</table>

[예시]

서론: (가)~(라)에는 인물을 부르는 표현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타인을 부르는 표현방식은 관계 맺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에는 존경, 기대, 친밀, 경멸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반복의 특징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에는 인물을 부르는 표현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나타난다. (가)의 선귤자는 사람들이 천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낮잡아 부르는 엄 행수의 근면하고 소탈한 삶을 높이 여겨 예덕선생이라 부른다. 이 존칭에는 벗을 넘어 선생으로 우러르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다. (나)의 백 주사는 보잘것없다가 미군일을 돕게 되면서 신분 상승한 방삼복에게 미스터 방이라고 부른다. 이 호칭에는 자신과 삼복의 뒤바뀐 처지에 대한 굴욕감과 그를 통해 본인의 바람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다. (다)의 치성은 국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서로의 나이를 알게 되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자 현철을 소위라는 계급 대신 택기에게 형이라고 부르게 한다. 이 표현에는 민족적 동질감과 친밀감이 내포되어 있다. (라)의 여동생은 그레고르를 오빠라고 부르다가 그가 벌레로 변하면서 가족의 짐이자 위협이 되자 저것이라 지칭한다. 이는 무용한 존재가 된 오빠에 대한 원망과 경멸감의 표현이다. 이처럼 타인을 부르는 표현방식은 관계 맺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에는 존경, 기대, 친밀, 경멸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다. [570자]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관계, 나, 주체와 객체, 환대, 윤리적 주체, 자비, 사랑의 실천
예상 소요 시간	48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를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평가하고, 그레고르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라)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의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 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하릴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우중충한 날씨에 그의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울적해졌다. '잠을 약간 더 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죄다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으나 이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그런 자세로 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아무리 뒤척여 보아도 번번이 흔들거리며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 낮은 음성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이번에는 가느다란 음성으로 여동생이 애원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오빠?"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그레고르를 본 가족들은 크게 놀라고, 그레고르는 방에서만 생활한다. 그레고르를 혐오하게 된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를 던져 큰 상처를 입힌다. 가족을 부양하던 그레고르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업을 구하고 하숙을 하며 살아갈 길을 모색한다. 하숙을 운영하던 중, 하숙인들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우린 이제 저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은 이제 아버지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그럴 게 뻔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마저 이처럼 끝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어찌나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여동생의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며 자신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렸다.

"얘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우리 어떡하면 좋겠니?"

"내쫓아야 해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것이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것이 오빠라면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곁에 오빠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면서, 이 집을 온통 독차지하고 들어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뒷부분 줄거리] 날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던 그레고르는 음식을 거부하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

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때 A와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바) 레비나스는 1906년에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난 프랑스 철학자이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기 위하여 전체주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기 입에서 나온 빵, 자기 빵 한 입을 주는 것,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대문을 여는 것"이라며 '타자 지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인간적 삶에 대한 것이자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당위적 해결책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타자에 대해 책임지고 타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끌어내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과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바탕이다.

(사)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 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 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었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산에서 살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사밧티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자와의 관계 맺음 방식에서 기능적 관계 맺음과 온전한 주체로서의 관계 맺음을 구분하여 기능적 관계 맺음의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넘어서 포용적 관계를 맺기 위해 타자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는 자세와 타자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호]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국어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문학</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125쪽)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126쪽)</td><td>제시문 (라)</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124쪽)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126쪽)</td><td>제시문 (사)</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1]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읽는다.(94쪽)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95쪽)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97쪽)</td><td>제시문 (마)</td></tr>
</table>
2. 교과명: 사회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td><td>[12사문04-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td><td>제시문(바)</td></tr>
</table></td></tr>
</table>

1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144-147	제시문(라)	○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17	284-285	제시문(사)	○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8	103-107	제시문(마)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146	제시문(바)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명칭/호칭/지칭의 변화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또한, 출제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시문의 중간에 카프카의 작품집 『성』(강두식 옮김, 여명출판사, 1994)에서 일부분(242-243 쪽)을 부분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변신」은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그린 작품으로, 제시문은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면서 그의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를 대화 장면으로 보여준다. 그레고르의 여동생은 오빠가 가족에게 경제적인 짐이 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면서 '저것'으로 지칭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비상, 2018) 교과서에 실린 손봉호의 「나는 누구인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글쓴이는 마틴 부버의 사상에 기대어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나'가 존재하는 양식이 '그것' 또는 '너'와 맺는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가 '그것'이 아닌 '너'와 맺는 관계의 양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018) 교과서에 실린 「'타자 지향성'을 통해 알아보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문화를 비판하고 소수자를 위한 윤리의식을 제안한다. 글쓴이는 이 제시문에서 레비나스의 사상인 타자 지향성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보다는 타자를 우선시하고 이해하며 책임지는 환대의 문화를 소개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8) 교과서에 실린 법정의 「설해목」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교술 장르의 맥을 잇는 현대 수필로,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를 통찰한 글이다. 제시문에 소개된 노승은 골칫거리인 소년을 훈계하는 대신 부드러운 손길로 보듬고, 부처님은 극악한 살인마마저도 따듯한 품으로 안는다. 이 두 사연을 통해 글쓴이는 차별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포용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6. 채점 기준

<table>
<tr><th>하위 문항</th><th>채점 기준</th><th>배점</th></tr>
<tr><td>문항 2</td><td>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tr><th>위반 글자 수</th><th>감점 점수</th></tr>
<tr><td>±1~25자</td><td>1점 감점</td></tr>
<tr><td>±26자 이상</td><td>2점 감점</td></tr>
</table>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에서 기술된 관계 맺음의 방식을 명확히 기술했는지 평가한다. (15점)
① ‘나’가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가변적인 존재임을 파악함. (5점)
② ‘나’와 ‘그것’의 관계가 차등적이며, 이 경우 ‘그것’이 대체 가능한 객체로 전락함을 밝힘. (5점)
③ ‘나’와 ‘너’의 관계가 대등하며, 이 경우 ‘너’뿐만 아니라 ‘나’ 역시 하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힘. (5점)

2) 제시문 (라)의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임을 밝히는지 평가한다. (5점)

3) (바), (사)를 고려하여 (라)의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점)
① (바)의 타자 지향성을 설명하면서 수용과 환대에 대해 언급했음. (5점)
②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이해하고 책임져야 함을 서술했음. (5점)
③ (사)에서 이야기하는 따듯한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에 대해 언급했음. (5점)
④ 여동생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그레고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5점)
</td><td>40</td></tr>
</table>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마)에서 기술된 관계 맺음의 방식을 명확히 기술(15점)	‘나’가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가변적인 존재임을 파악함.	5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차등적이며, 이 경우 ‘그것’이 대체 가능한 객체로 전락함을 밝힘.	5점
		‘나’와 ‘너’의 관계가 대등하며, 이 경우 ‘너’뿐만 아니라 ‘나’ 역시 하나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힘.	5점
	② (라)의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임을 밝힘(15점)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동생과 그레고르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임을 밝힘.	5점
	③(바), (사)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를 도출함(20점)	(바)의 타자 지향성을 설명하면서 수용과 환대에 대해 언급했음.	5점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이해하고 책임져야 함을 서술했음.	5점
		(사)에서 이야기하는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에 대해 언급했음.	5점
		여동생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그레고르를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5점

7. 예시 답안

(마)의 논지에 의하면, (라)의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대체가능한 관계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오빠뿐만 아니라 여동생 역시 오빠에게 너가 아닌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대체 불가능한 관계로, 주체와 주체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여동생뿐만 아니라 오빠도 비로소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사람의 관계는 인격 전체가 대등하게 만나는 나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로나 대체될 수 있는 기능적 관계일 뿐이다. 한편, (바)의 관점에서 여동생에게 필요한 태도는 나보다 타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타자 지향성이다. 여동생은 나와 다른 존재인 오빠를 가족의 일원으로 무조건 받아들

여야 한다는 당위적 태도보다는 그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오빠를 책임지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를 고려하면 여동생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빠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여동생은 오빠를 힐난하며 소외시키지 말고 존재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즉, 오빠를 감싸 안아 포용하는 온화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570자]

문항카드 6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경영경제계열 (수학)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확률과 통계
	핵심개념 및 용어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예상 소요 시간	24분/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이름을 각각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이 보험회사는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에 따라 계약자가 속하는 그룹을 해마다 1월 1일에 재분류한다. 다음의 표는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횟수 모에 따라 각 그룹에 속했던 계약자들이 내년에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될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저위험군에 속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가 한 번일 때 내년에 중위험군으로 재분류된다.

		사고 횟수 X에 따라 재분류될 내년의 계약자 그룹			
		X=0	X=1	X=2	X≥3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사고 횟수 X는 계약자 그룹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X	0	1	2	3	4 이상	합계
P(X = x)	0.1	0.2	0.3	0.2	0.2	1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에 대한 연 보험료는 각각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다.

[문제 3] 올해 계약자 그룹의 재분류 후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 수가 각각 200명, 300명, 100명이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내년에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 계약자의 추가 및 해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3. 출제 의도

일상 생활에서의 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확률적 문제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 확률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 및 개인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문제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확률 구조를 파악하고 관련된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문제 3	[확률과 통계] - (2) 확률- ① 확률의 뜻과 활용 [12확통02-02]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해한다. [확률과 통계] - (3) 통계- ① 확률분포 [12확통03-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의 뜻을 안다. [12확통03-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확률과 통계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0	80-92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20	82-95
	확률과 통계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20	79-90
	확률과 통계	황선욱 외	미래엔	2020	79-91

5. 문항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3가지 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확률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둘째,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명수의 기댓값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보험료의 기댓값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3가지 구조를 종합하여 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문항	1.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확률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6점 2.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명수의 기댓값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6점 3. 내년의 계약자 그룹의 보험료의 기댓값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 +5점 4. 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 '33300(만원)'을 정확하게 계산한 경우: +3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2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올해의 각 계약자 그룹이 내년에 속하게 될 그룹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 1〉		내년의 계약자 그룹: 확률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0.1	0.5 (=0.2+0.3)	0.4 (=0.2+0.2)
	중위험군	0.1	0.2	0.7 (=1-0.3)
	고위험군	0	0.1	0.9 (=1-0.1)

▶ 내년의 각 그룹 계약자 명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표 2〉		내년의 계약자 그룹: 명수 기댓값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올해의 계약자 그룹	저위험군	20 (=200×0.1)	100 (=200×0.5)	80 (=200×0.4)
	중위험군	30 (=300×0.1)	60 (=300×0.2)	210 (=300×0.7)
	고위험군	0 (=100×0)	10 (=100×0.1)	90 (=100×0.9)

▶ 내년의 각 그룹 계약자 명수 및 보험료 합계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표 3〉	내년의 계약자 그룹: 명수 및 보험료 합계의 기댓값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명수	50	170	380
보험료	2000(=50×40)	8500(=170×50)	22800 (=380×60)

▶ 따라서, 내년의 연 보험료 총액의 기댓값은, 2000+8500+22800=33300(만원)이다.